

글로벌 시대의 시민성 교육 접근방법

박 성 인

연세대학교 박사과정

1. 들어가는 말

시간과 공간에 대한 오랜 관념이 무너지고 글로벌 상호의존성이 강조되는 오늘날 글로벌 시민성교육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오늘날 글로벌 사회는 테러와 평화의 문제, 빈곤, 인권, 개발, 자원, 환경 문제 등 개별 국가 수준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 지역적 및 지구적 연결망은 더욱 복잡하고 견고하게 구성되고 이는 다시 글로벌화를 촉진시킨다. 근대의 사회 질서는 전통적인 윤리 규범, 헌법 등에 의해 규정되었지만 시공간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전통적 질서와 구성이 해체되는 가운데 글로벌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적 접근 방법도 새롭게 고안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글로벌 시민은 전지구적 차원에서 인간의 복지, 환경, 기본권, 존엄성과 같은 글로벌 이슈에 관여할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윤리적인 시민으로 글로벌 시민성 교육은 이러한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글로벌 사회의 등장과 개별 주체들의 정체성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글로벌 사회에 필요한 시민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학습자들에게 글로벌 시민성을 획득시키기 위한 방법적 접근으로서 학습자 중심의 지식의 구성 과정을 중시하는 구성적 접근과, 참여와 소통을 중시하는 대화적 접근, 그리고 총체적 접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글로벌화와 시민성교육

(1) 글로벌화와 정체성

글로벌화(globalization)는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그 내용과 특성,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여러 관점이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화는 그동안 서로 달랐던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는 연속적인 과정을 일컫는다. 글로벌화는 초기에는 경제적인 관계를 일컫는 경우가 많았기에 경제 강대국 중심의 세계 재편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글로벌화는 무역과 교환과 같은 시장 가치를 중시하고 경제적 세계 체제를 등장시키고 경제적 측면의 통합을 강조한다. 사람, 물자, 정보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 민족국가의 경계가 약화되고 세계사회가 경제를 중심으로 통합되기 시작한다. 생산 양식, 투자 양식, 금융 시장, 노동 시장 등 전 지구적 생산 관계의 변형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글로벌화(globalization)는 경제, 정치, 문화, 환경 모두가 하나의 지구적인 울타리 내로 동질화되어 가는 현상을 지칭한다. 각종 통신 기술의 발달, 지구적 기업의 활동, 보편 문화의 확산 등으로 인해 지구의 시공간은 하나로 압착이 되고, 이러한 현상들은 영토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 국민 국가의 경계를 허물고 지구촌의 통합을 촉진시키게 되었다. 국제화가 국가들이 분명히 구획된 경계를 갖는 개별적 민족 단위로 남아있다는 가정에 기반을 둔다면 글로벌화는 국제와 국내의 구분이 붕괴되고 해체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Giddens(1998)는 글로벌화는 개인을 국민국가 권력에서 벗어나게 하고, 개인과 지방의 정체성을 다시 일깨우는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한다고 주장하며 글로벌화를 하나의 지향점으로 파악했다. 글로벌화는 지역 문화 의식과 주권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며, 우리는 폐쇄적 민족주의나 자민족 중심주의 대신 다원적 세계, 바람직한 세계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Roberstone(1990)은 글로벌화는 공간적으로 세계가 하나의 장소가 되는 과정을 취하고 내용적으로는 지구적 의식(the consciousness of the globe)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로버스톤은 글로벌화로 의 역사적 이행, 즉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화는 최근에 와서야 가능해졌다고 주장한다. 지구적 의식(생태환경, 건강, 인간주의적 관심)의 고조화, 지구적 조직이나 운동의 증가, 문화 다양성, 다인종성 등이 개인의 정체성을 복잡하게 만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David Held(2006)는 글로벌화의 본질과 영향을 규명하며 오늘날 부각되는 글로벌 이슈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지구온난화, 종다양성, 생태계, 물 부족과 같은 지구 생태학적 문제와, 둘째, 가난, 분쟁 예방, 감염 질병 등과 같은 인간성 유지와 직결된 문제, 셋째, 핵 증식, 독극물 처리, 지적 재산권, 유전 연구 규칙, 금융 및 세금 규칙 등과 관련된 규칙서(rulebook)가 필요한 문제이다. 그는 이러한 지구적 문제는 단일 국가 수준에서 해결될 수 없으며 집합적이고 협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정의와 민주를 기초로한 글로벌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이처럼 지구적 상호작용의 범위와 심도, 속도가 증가하면서 지역적, 지구적 연결망은 더욱 탄탄해지고, 글로벌사회가 형성된다. 공유된 사회적 공간으로서 글로벌사회를 단일한 범주의 상호작용 체계, 문화적 실체로 인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글로벌화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공동체를 연결시키는 인간 사회 조직의 시공간적 규모의 근본적 변용을 초래하는 역사적 과정으로 개념화 될 수 있다²⁾.

글로벌시민사회의 도래와 함께 사회 구성원은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새로운 정체성 형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정치권력에 지배를 받던 기존의 체제가 글로벌화의 도전을 받고 무너지며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분출하기 시작했다. 기존에 정체성을 형성하던 요소들이 이완 또는 해체되고,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소들이 등장하면서 개인을 규정하는 집합적 범주의 층위가 다양해졌고, 개개인인 자신을 어디에 위치시켜야 하는지 혼란스러워졌다.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인으로는 심리적인 의식구조, 행동이나 생활의 양태, 법률적 규정이나 조문, 거주 공간의 신체적, 물리적 요소 등을 들 수 있다.

근대 사회까지만 해도 사회의 질서는 국가 내의 계급 관계, 가부장적 질서와 같은 전통적인 윤리 규범, 헌법 등에 의해 규정되었다. 하지만 지구적 시공간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민족사회의 전통적 구성이 상대적으로 해체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시대의 개별 주체의 정체성은 다원적이고 개방적인 지구 세계를 만들어 가

2) Harvey(1989)는 글로벌화를 시간과 공간의 압축으로 표현하였고, Scholte(2000)는 글로벌화를 탈영토화, 또는 사람들 사이의 초영토적 관계의 증가라고 주장하였다(존 베일리스외, 하영선 외 역, 2009: 28-36)

는 조건이 된다. 여기서는 글로벌 시민 사회가 부여하는 정체성의 특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먼저 글로벌 시대의 개별 주체는 사회의 다양한 영역과 위치에 동시에 놓이는 다원적 주체(multi-faced subjects)로서 출현하게 되었다. 김왕근(1999)은 글로벌화 현상이 심화되며 세계 시민으로서 지니게 되는 정체성은 지역, 국가, 세계 관계 속에 병렬적 포함관계로 중층적으로 중첩되는 특성 있다고 주장한다. 서태열(2004)은 글로벌 시대에 정체성이 갖는 의미는 세계적 차원, 국가적 차원, 지역적 차원에서 고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시대에는 다원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여러 층의 권위와 정체성 공존하므로 다층적 정체성을 가진 혼성적 자아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글로벌 시대에는 사회적 존재들이 거의 모든 영역에서 긴밀하게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연결성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한다. 전 세계적 교통 및 통신 체계가 발달하면서 각종 뉴스, 사상, 상품, 자본, 기술 등 모든 정보의 이동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며 개인은 모든 분야에 걸쳐서 상호작용이 가속된다. 세계 곳곳에서 아이폰의 활용부터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에 대한 공포까지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을 서로 공유하며, 웹을 기반으로 소통하며, 시공을 초월한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다. 세계를 주권국가 또는 민족 경제 및 정치 공간으로 규정하는 국경의 중요성은 해체되며 개인은 공유된 사회적 공간에서 서로 긴밀히 상호작용하며 소통하면서 관계를 맺어 간다.

오늘날 인간의 이동성이 증가하면서 특정 공간이나 지역에 자기 자신을 고착시키기 보다는 정체성을 끌 없이 개방해 나가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이 지방적, 지역적 차원에 의미를 부여하는 미시적 정체성을 형성하게 한다. 이러한 미시성은 복잡하게 상호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적 정형화가 불가능하다. 또한 지구 전체로 거대해지는 삶의 구조 속에서 보다 주체적이고 개성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개인의 미시적 정체성은 광역적으로 흩어질 뿐만 아니라 유동적으로 형성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지구 자본주의 현상은 개별 주체에게 소비자적인 정체성과 감각적인 소비문화를 형성시킨다고 할 수 있다. 상품의 이미지, 상징, 의미를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의 경향이 나타나며 다양한 문화적 자원의 활용이 필요해졌다. 이러한 자본주의 문화 양식은 일상 세계에서 소비 규범, 소비 패턴, 생활양식으로 드러나며 대중문화의 발달, 다양한 상징, 기호, 이미지, 담화 등을 연출하게 된다. 이는 각 민족국가의 언어 장벽을 초월하여 지구촌을 가로질러 감각적으로 공유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비문화는 지구촌에 다시 재생산이 되고 지구촌 생활양식은 동질화로 나타나기도 한다.

글로벌 시대에 개인은 불안정한 정체성을 경험하기도 한다. 부유한 OECD 국가의 개별 주체들은 극빈한 아프리카 국가의 개별주체들과 서로 다른 세계를 경험할 것이다. 글로벌화는 모든 지역 또는 국가에서 유사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비대칭적으로 불균등하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지역, 국가 또는 공동체 내에서도 글로벌화는 동일하게 경험되고 인식되지 않는다. 이런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에게 글로벌화는 심한 박탈감을 안겨줄 수도 있고, 지구 사회를 불평등하게 인식하게 할 수 있다. 지구 전체가 열린 공간, 공유하는 것이 많은 사회적 공간으로 변화할수록 개인 정체성은 분열될 수 있고, 비대칭성을 인식하게 될 가능성 또한 더욱 커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은 지구의 통합과 분열, 정의와 불평등, 질서와 무질서의 모순된 경향이 함께 복잡하게 뒤얽힌 세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단일 민족이나 단일 문화로 구성된 민족 국가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개별 주체는 다차원적·포스트모던적·미시적·유동적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은 혼란과 분열 등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

었고 근대적 정체성의 해체와 재구성 과정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정체성의 문제는 개개인이 시민성을 형성하는 과정과 맞닿아 있다. 건강한 정체성을 가진 시민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관계 맺으며 주체적으로 사회를 구성하고 삶을 영위해 나갈 때 글로벌 시민사회는 평화롭게 공존·발전 할 수 있을 것이다.

(2) 글로벌 시민성교육

시민성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는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개념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민성(citizenship)은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하는 행동 성향을 말한다. Heater(1990)에 따르면 시민은 사회의 주체로서 가치 있는 인간 삶을 영위하도록 공동체 구성을 위해 노력하며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시민의 개념은 신민, 국민의 개념과 비교하면 더욱 명료해지는데, 신민은 절대 군주 체제에서 군주의 지배를 받는 신하를 나타내고, 국민은 근대 국가를 전제로 하는 국가의 구성원을 의미한다. 시민은 지역과 국가를 초월하여 긴 인류의 역사를 두고 발전해 온 보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성이란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양을 나타내며 민주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의 총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고 이러한 시민성³⁾은 사회와 개인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된다(김용신, 2007).

그렇다면 글로벌 시민사회 구성원이 지녀야 할 소양으로서 시민성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UNESCO(1999)는 사회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민적 자질로서 세계인으로서 문제를 보고 접근하는 능력, 인간 권리를 보호하려는 민감성, 지역사회, 국가, 세계적 차원에서 정치적 참여 능력과 의지, 문화적 차이 이해, 수용, 관용하는 능력, 사회 속에서 개인의 역할에 대한 책임 의식과 협동 능력, 갈등을 비폭력으로 해결하는 의지, 비판적 체제적 사고능력, 환경을 보존하는 소비성향과 삶의 방식을 채택하려는 의지를 언급하였다.

지구위원회(Earth Council, 2002)가 발표한 지구헌장(Earth Charter)에는 글로벌 시민성의 주제를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공동체 생활에 대한 존중과 관심, 둘째, 생태적 통합, 셋째, 사회 경제적 정의 넷째, 민주주의, 비폭력, 평화이다. 영국의 비영리단체인 Oxfam(2006)에 따르면 글로벌 시민은 첫째, 글로벌 이슈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둘째, 가치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셋째, 세계를 보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변화시키려는 시민이다.

기존의 시민성은 국민국가라는 울타리 안에서 단일한 지위와 동일한 권리 및 의무를 부여 받는 것을 중요시 했다면 글로벌 시민성은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지역, 국가, 세계 차원의 각종 분쟁을 대화와 타협과 같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민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학자들에 의해 글로벌 시민성 교육에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Heater(1990)는 바람직한 글로벌 시민은 지구와 지구인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참여의식을 가진 사람, 초국가적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시민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진정한 글로벌 시민 교육의 목표는 모든 형태의 인간의 폭력에 의한 고통을 줄이기 위한, 지식, 민감성, 굳은 결의를 가진 개개인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새로운 글로벌 시민성 교육을

3) Michael Walzer는 시민성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첫째는 공직, 책임, 부담으로서 시민성이고 둘째는 지위, 권한 권리로서의 시민성이다. 책임으로서 시민성은 공동체주의적 성격이 강하고, 권한으로서 시민성은 자유주의적 입장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한 내용과 방법, 수단과 목적, 그리고 사회적 정치적 연결에 대한 새로운 교육선언(manifesto)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설규주(2004)는 글로벌화와 지역화는 동시에 진행되며 국민 국가 위상이 약화되는 시점에 탈국가적 시민성이 대두된다고 주장한다. 글로벌화에 대응하는 글로벌 시민성과 지역화에 대응하는 지역 시민성, 두 가지의 조화로운 함양을 위해 후천적 보편주의(a posteriori universalism)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수성을 추구하는 지역시민성은 보편성을 지향하는 글로벌시민성을 찾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후천적 보편주의는 '기반'으로서 보편성이 아닌 '방향'으로서 보편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특수성을 보편성 찾기 위한 출발점 및 자원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미화(2005)는 세계화교육은 전지구적 관점, 세계주의, 세계시민주의에 편중되어, 지역적, 국가적 정체성이 결여된 시민교육으로 치우칠 우려 있다고 지적하였다. 현행 사회과 교육 담론과 교육과정은 지역 정체성, 세계시민으로의 정체성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방향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 교과서에는 세계시민으로서 정체성 비중이 높아 글로벌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 결여되어있다고 주장한다. 세계화 흐름을 인지하고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식의 서술 경향이 엮보인다는 주장이다.

글로벌시민성은의 개념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인식으로서의 글로벌 시민성을 논할 수 있다. 지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식을 기르기 위한 것으로, 세계의 시민이라는 의식, 지구라는 한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의식,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식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다. Barber(1992)는 글로벌 시민성은 의식의 확장을 통해 낯선 사람들이 이웃이 되어가는 역동적인 관계라고 하였고, Held(2006)는 세계시민은 국가적 전통과 운명 공동체, 대안적 삶의 양식의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시민성의 장벽은 우리 마음 속 의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권리와 책임의 조합을 나타내는 글로벌 시민성, 지구 규모의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를 강조하는 참여로서의 글로벌 시민성, 민족, 언어, 종교, 사회 계층 등이 서로 다른 인간이 어떻게 관계 맺으며 상호 작용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간문화 이해로서의 글로벌 시민성, 학문적, 직업적, 경제적 경쟁력과 능력을 강조하는 성취로서의 글로벌 시민성, 개개인이 외국에 나가서 일하고 살 때 어떻게 환경에 적응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는 국제적 유동성으로서의 글로벌 시민성 등 다양한 차원에서 글로벌 시민성을 이해하고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시민성 교육은 학습자에게 '한국인'이기 이전에 '같은 인간', 혹은 '지구 시민'임을 인식키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보편성을 추구하면서도 다양성을 존중하는 글로벌 시대의 바람직한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한 글로벌 시민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일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어떻게 학습자에게 글로벌 시민성을 함양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적 차원의 접근을 모색하고자 한다.

3. 글로벌 시민성교육의 접근방법

(1)총체적 접근

실제 세계에서 개인과 사회는 이분법적으로 분리된 구성요소가 아니라 연계된 총체성 안에서 의미를 확보할 수 있다. 우리가 의식하는 대상의 정체성은 단순히 대상 그 자체 혹은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물에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아닌 것을 규정해야 하듯 개인의 본질과 정체성은 개인 그

자체와 개인이 아닌 그들 사이의 '관계'에 있다. 시민성 이해의 본질은 개인과 사회 수준에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총체적 인식에 있다. 사회 현상과 개인을 본질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사회 체계와 연계된 개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은 글로벌 현상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지구의 축소로 인해 모든 사회 현상은 더욱 유기적으로 관련성을 갖게 되었다. 글로벌 현상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 등 모든 영역이 상호 의존적인 지구촌 사회를 만들어 냈다. 따라서 글로벌 사회의 학습자들에게는 각각의 현상이나 사건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것부터 오늘날의 것 까지, 내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 까지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단순히 학습내용으로 지구촌을 다룬다고 학습자에게 글로벌 시민성이 실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 인간과 시간, 공간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삶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에 주목하고, 학습자가 시공간상 멀리 있는 현상들에 대해 의미 있는 연결 고리를 찾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류현중, 2010).

세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 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서구적이고 분석적, 본질적 사고법에서 총체적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찾아오는 오일 위기나 경제·문화적 유행을 나와 관련된 사건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 개발, 인권, 평화, 인종, 성, 국적에 대한 반차별 등 여러 문제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이 필요하다. 또한 상호작용으로서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국면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 현재의 시점뿐만 아니라 미래를 응시하는 커리큘럼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되어 살아갈 수 없으며 태어날 때부터 사회와 상호작용을 시작한다고 하였다. 모든 사회는 혼합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는 상호작용하는 개인과 집단, 사회, 국가, 세계를 포괄하는 총체성 속에서 글로벌 사회를 인식해야 할 것이다. 총체적 관점을 가진 글로벌 사회 시민은 공유된 가치체계와 행동 양식을 가지고 글로벌 사회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는 글로벌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2) 대화적 접근

시민은 태생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교육되어 지는 것이다. 시민성은 인간 이성과 지성의 단순한 결과로서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학습되고 교육되어야 하는 것이다. 상호 신뢰, 소통, 관용, 참여의식과 같은 대화 능력은 교과서에서 지식적으로 배운다고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 과정을 통해 체화되어야 한다. 소통과 참여의 경험을 통한 구체적 지식 습득의 경험은 학습자의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글로벌 시민성 발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민주주의 실현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내 주변의 작은 일에서부터 지구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공적인 공간에서 의견을 나누고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소통과 참여의 힘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 개인의 삶과 공동체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삶 속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하며,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는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필수적인 자질이라 할 수 있다.

학습자는 대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하나의 담론 체계, 혹은 시민성이 다른 담론 체계 혹은 시민성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몰아 억압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윤평중, 1998). 이러한 학습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대

립 상황을 조정해 낼 수 있는 능력을 배우고, 다른 형태의 새로운 주장을 펼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갈등의 해결에서부터, 확장된 지역적, 지구적 차원의 분쟁과 갈등을 상호존중과 대화로서 조정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글로벌 시민은 글로벌 이슈들을 멀리서 전달되는 일방적인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담론체계 안에서 대안적 질서를 모색하는데 참여할 수 있다. 참여의 과정에서 합리적 비판의식을 획득할 수 있으며, 대화를 통한 합의의 도출, 신뢰성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적 원리를 스스로 확인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음은 물론이다.

학습자는 참여와 실천을 통해 글로벌화가 주는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일상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수 있다. 글로벌 사회의 도래와 함께 긍정적인 면으로 세계적 수준에서 민주주의, 평화, 인권 등 보편적 가치가 증진되기도 하지만, 국민국가 수준에서 보호받던 복지나 인권, 정의, 형평 등이 오히려 후퇴하는 현상도 보인다. 학습자는 글로벌화의 부작용, 이를테면 신자유주의 경제 논리가 교육이나 의료, 복지에도 적용되는 문제, 국제기구 이면의 초강대국 거대 자본 집중으로 인한 문제 등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판적 안목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참여와 소통은 학습자로 하여금 개체성과 총체성의 상호소통을 가능하게 해준다. 학습자로 하여금 개체성과 총체성의 균형과 조화 속에서 글로벌화의 흐름 인식하고 글로벌 시민적 정체성 형성을 형성할 수 있게 해준다. 확장된 세계와의 소통을 통해 타인, 타국 이해할 수 있는 사회적 관점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나와 내가 다르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이익, 정체성, 신념, 감정 등의 갈등도 중재, 협상, 타협 등 대화를 매개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로운 소통, 민주주의 원리인 합의에 의한 정치, 참여자간의 평등, 개방적 분위기, 언어적 상호작용 등이 전제될 때, 학습자는 글로벌 시민으로서 분쟁을 분석하는 능력,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능력,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포용하는 능력 등을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구성적 접근

기존의 분절적이고 이분법적인 지식관은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오늘날의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협력과 통합이 강조되고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체계가 성립되면서 교육 방법적 측면의 질적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구성적 접근을 통해 고차원적인 글로벌 지식을 획득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분산적이고 복합적인 글로벌 사회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사회적 적합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구성주의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학습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를 개인 경험에 의해 재구성하고 인지구조의 평형을 달성하며 글로벌 지식을 형성해 나갈 수 있다. 개개인이 학습 목표와 방향을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글로벌 사회와 현상에 대해 주제적,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탐구하며 글로벌지식을 습득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습자는 글로벌화, 글로벌 이슈에 대해 내적인 의미를 형성하고, 글로벌 지식을 멀리 떨어져 있는 단편적인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세계와 직결된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는 지식은 '외면화-객관화-내면화' 과정을 거치며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대화를 통해 사회와 개인의 공통된 인식, 상호주관성에 도달할 수 있고, 이것이 곧 지식 구성

의 과정이 된다고 주장한다(Vygotsky, 1962). 학습자에게 제시되는 글로벌 과제들은 단순히 학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수행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학습자가 성취하는 '내면화'란 아동의 사고 수준이 사회 문화적인 상황과 타인을 고려할 수 있을 정도로 '상호주관성'을 획득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공통된 인식에 도달하는 과정이며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고와 행동의 공유를 전제로 한다. 특수성(개별성)이 보편성(세계성)과 호환되는 글로벌 현상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구성적 접근이 타당하다.

권위주의적 단편적 지식의 일방적 전달과 암기의 과정이 아닌, 사고와 경험의 재구성 과정을 통한 글로벌 지식의 습득은 글로벌 시민적 자질 형성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구성주의 관점에서 개인은 지식의 소유자가 아닌 만드는 과정의 참여자이고 지식은 대화의 소산으로 공동체적 산물이다. 구성주의적 접근은 사회구조를 결정하는 의사소통체계가 일방향성에서 양방향성으로 전환된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교육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면서 서로 다른 생활양식과 가치가 함께 작동하는 글로벌 사회에서 일정하게 학습된 문제 해결 방법으로 새로운 상황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다. 다양성과 역동성을 특성으로 하는 글로벌 사회에서 구성적 접근은 개인에게 의미 있는 지식을 만들고, 동떨어진 공간, 시간, 사회를 연결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에 자신이 가진 스키마를 넘어 문제 상황에 대한 새롭고 융통성 있는 시각을 갖추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후쿠시마 원전 문제나 리비아 사태 인도주의 개입 문제 등 글로벌 이슈의 하나를 주제로 삼아 학습자들 사이의 다양한 상호작용의 기회를 부여하고 집단지식을 만들어 가는 장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지식 생산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접근의 평등성은 누구나 지식생산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관심 분야의 정보와 지식을 습득, 재창조, 발전시킬 수 있다. 블로그, 지식 서비스, 백과사전, UCC, 트위터 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지식 창조에 참여할 수 있고, 지식은 상호작용을 통해 검증, 수정, 안정화되며 확산된다. 이는 Vigotsky가 언급한 지식구성의 사회적 기원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네트워크 환경에서 학습자가 글로벌 사회에 참여하고 실천하는 것은 보다 손쉬워졌다. 글로벌 사회의 시민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있고, 개체 간 타화수분현상이 발생하는 생태계와 같이 지역사회 및 글로벌 사회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의 생산과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박기범, 2010). 학습자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환경, 다문화, 자원, 인권 문제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참여하고, 교류하며, 지식 구성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글로벌 시민적 자질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맺음말

우리는 오늘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다. 과학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과거와는 달리 사회들 간의 상호연결성이 점차 증대되고, 지구의 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멀리 떨어진 사회에까지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 것이다. 글로벌화 현상은 단편적 현상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모든 삶의 영역에 걸쳐 나타나는 특징으로 우리 삶의 양식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국가 간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의 상호 의존성이 확대되는 글로벌 사회가 도래하며 글로벌 시티즌을 육성하는 것은 사회적 당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글로벌 사회의 등장은 개별 주체들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글로벌사회의 시민성 교육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제기한다. 글로벌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적 접근 방법도 기존의 패러다임과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단순 지식의 습득이 아닌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지구규모의 문제를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교육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글로벌 사회의 시민성교육 접근법으로서 연결성을 강조하는 총체적 접근, 참여와 소통을 중시하는 대화적 접근, 지식 구성 과정을 중시하는 구성적 접근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현대 우리가 아무리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틀을 벗어나 공교육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한국 교육은 글로벌 시민성 교육의 논리와 모순이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부터 단일민족이라는 순혈주의가 강해왔고, 입시 위주의 획일화되고 경쟁적인 교육 문화 속에서 단편 지식의 주입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왔다. 또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글로벌화를 신자유주의의 물결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민 사회를 살아가는 미래 세대에게 적합한 시민성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고찰하여 교육 현장에 반영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글로벌 사회는 문화, 종족, 언어, 종교 등의 다양성을 갖고 있다. 글로벌 사회의 과제는 이처럼 다양한 집단이 그들의 다양성을 존중받고 유지함과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수성과 보편성의 균형을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는 글로벌 시민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지역, 국가, 세계 차원의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보편적인 민주적 가치와 원리를 가지고, 글로벌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글로벌 공정성이 실현되는 사회로 한걸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참고 문헌>

- 김용신(2007). 사회과교육과 강한 정치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 김용신(2009). 다문화교육론 서설. 파주: 한국학술정보.
- 윤평중(1998). 담론이론의 사회철학. 서울:문예출판사.
- Barber, B. 박재주 역(1992). 강한 민주주의. 서울 : 인간사랑.
- Held, D.(2006). Cosmopolitan globalism and human community. Dialogue-canadian philosophical review, 2006, Vol.45(4),
- Edwards. M. 서유경 역(2005). 시민사회-이론과 역사, 그리고 대안적 재구성. 동아시아.
- Giddens. A. 한상진 · 박찬욱 역(2010). 제 3의 길. 생각의 나무.
- Noddings, N.(2005). Educating Citizens for Global Awareness. New York : Teachers College Press.
- Oxfam.(2006).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 A guide for schools. UK : Oxfam Development Education.
- Heater, D.(1990). Citizenship : The Civic Ideal in World History, Politics, and Education. UK : Longman Group.

- Roberstone, R.(1990). 'Globality, Global Culture and Images of World Order' in H.Haferkamp and N.Smelser(eds). *Social Change and Modernity*. Berker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김왕근(1999). 세계화와 다중시민성 교육의 관계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28.
- 김용신(2009). 한국 글로벌교육 연구전통의 이해와 변환. *글로벌교육연구*. 1.
- 류현종(2010). 지구적 관계 맺기:'착한 초콜렛' 수업 실천을 통한 성찰. *글로벌교육연구*. 2(1).
- 박기범(2010). 디지털 네트워크시대의 글로벌 시민성. *글로벌교육연구*. 2(1).
- 박상준(2003). 헤겔의 시민사회론과 법교육에의 함의. *사회과교육*. 42(1).
- 마미화(2005).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세계화에 대한 관점 및 서술 내용의 분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논문.
- 서태열(2004). 세계화, 국가정체성 그리고 지역정체성과 사회과교육. *사회과교육*. 43(4).
- 설규주(2004). 세계시민사회의 대두와 다문화주의적 시민교육의 방향. *사회과교육*. 43(4).
- 성열관(2010).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의 보편적 핵심 요소와 한국적 특수성에 대한 고찰. *한국교육*. 37(2).
- 신현국(1995). 세계교육(Global education)에 대한 이론적 고찰. *비교교육연구*. 5(1).
- 주선미(2010). 공론장 이론을 통한 시민성 연구. *사회과교육*. 49(2).
- 허수미(2010). 시민사회의 특성과 시민성 교육의 방향. *사회과교육연구*. 17(4).
- Banks, J.(2008). Diversity, group identity, and citizenship education in a global age. *Educational Researcher*. 37(3).